

# 김 교육감 “수능 사정변경 고려해야”

### 1년 10개월 전 입시요강 확정할 때와 상황 달라져... 형평성·공정성 언급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입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정변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일부 대학들이 '2021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세부사항은 1년10



개월 전에 공포됐다'면서 이것을 바꾸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사정이 변경됐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교육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도 계약체결 시와 계약일행 시점에 종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고려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지탱하고 있는 가치

관이 단순사고, 기계적인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대입과 관련한 공정성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기회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형평성은 저울에 두 개의 물건을 올려놓으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은 단순히

무게가 같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이 풀어야 하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원에도 QR코드를 적용하는 등 전자장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에서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작정 저장해 놓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코로나19로 어렵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본교 졸업생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경제난·취업난 반드시 이겨내자”

### 전주비전대, 졸업생 격려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코로나19로 어렵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본교 졸업생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순직 총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대 고용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경제 전반이 일자리 감소 추세가 거셀 것이다"며 "전공분야 취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추후 경력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2인, 3인 등에 대한 취업포드프로그램을 스스로가 개발해서 현 경제난 취업난을 반드시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홍 총장은 "취업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학과 및 대학 취업지원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대학에서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공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의 채용문을 두드려 반드시 7월 안에 취업에 성공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순직 총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대 고용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경제 전반이 일자리 감소 추세가 거셀 것이다"며 "전공분야 취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추후 경력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2인, 3인 등에 대한 취업포드프로그램을 스스로가 개발해서 현 경제난 취업난을 반드시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홍 총장은 "취업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학과 및 대학 취업지원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대학에서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기자

## 군산대 학생상담센터 교직원 마음챙김 교육

군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최근 교내 강당에서 군산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직원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불안감, 위기감을 극복해 마음의 안정과 근력을 기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 과정은 마음안정, 긴장완화, 피로해소,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등 다양한 상황별 콘텐츠로 세분화돼 있고 △마음과 몸이 하나임을 알아차리기 △몸의 내면을 알아차리기 △걷기 명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최근 교내 강당에서 군산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원광대 건축공학과 최세진 교수 한국건축시공학회 우수 논문상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창의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최세진 교수가 한국건축시공학회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국내 건축 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신학년 기술 개발, 산업현장 시공 전문가 육성 국제 기술 및 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돼 약 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사)한국건축시공학회는 지난 1년 동안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매년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12일 개최된 2020 봄학술발표대회에서 진행됐다.

/익산=정양원기자



## 전북교육청, 학부모 학교참여 확대 팔걸어

### 내달 13일까지 '상반기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내 학부모 학교참여 확대와 단위학교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을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임원 및 학부모교육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컨설팅은 학부모회 운영상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학부모회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대상 학부모회 운영 컨설팅 △학부모회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시간 △활동 추진사항 점검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이다.

특히 임원선출 방법 및 예산집행 처리 절차 등 학부모회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일정은 16일 군산을 시작으로 17일 김제, 22일 완주·무주, 24일

장수, 25일 군산(중·고·특수), 29~30일 익산 순이다.

또 7월 2일에는 부안·진안, 3일 고창·남원, 6일 임실, 8일 정읍, 9~10일 전주, 13일 순창 순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회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통하는 자리"라면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학부모회 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도교육청, 초등학생 환경감수성 키운다

### 학교생태지도만들기 5곳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5곳을 대상으로 학교생태지도를 만든다.

생태지도는 학교 주변 곤충과 식물을 관찰 후 세밀화 그리기 등 책자만들기를 통해 과학적 창의성을 함양하고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대상학교는 전주여울초, 전주원동초, 전주교대전주부설초, 계북초, 행안초 등이다.

또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수직정원(바이오월)이 조

성된다. 교실에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수직정원을 만들고 공기질 변화 관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의 과학적 창의성을 기를 뿐 아니라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전주대성초, 전주안원초, 완주화산초, 군산해성초, 김제중앙초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1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은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길러 정서안정과 학업집중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연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과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